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과 지방경제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문제 제기

-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

조선, 철강, 석유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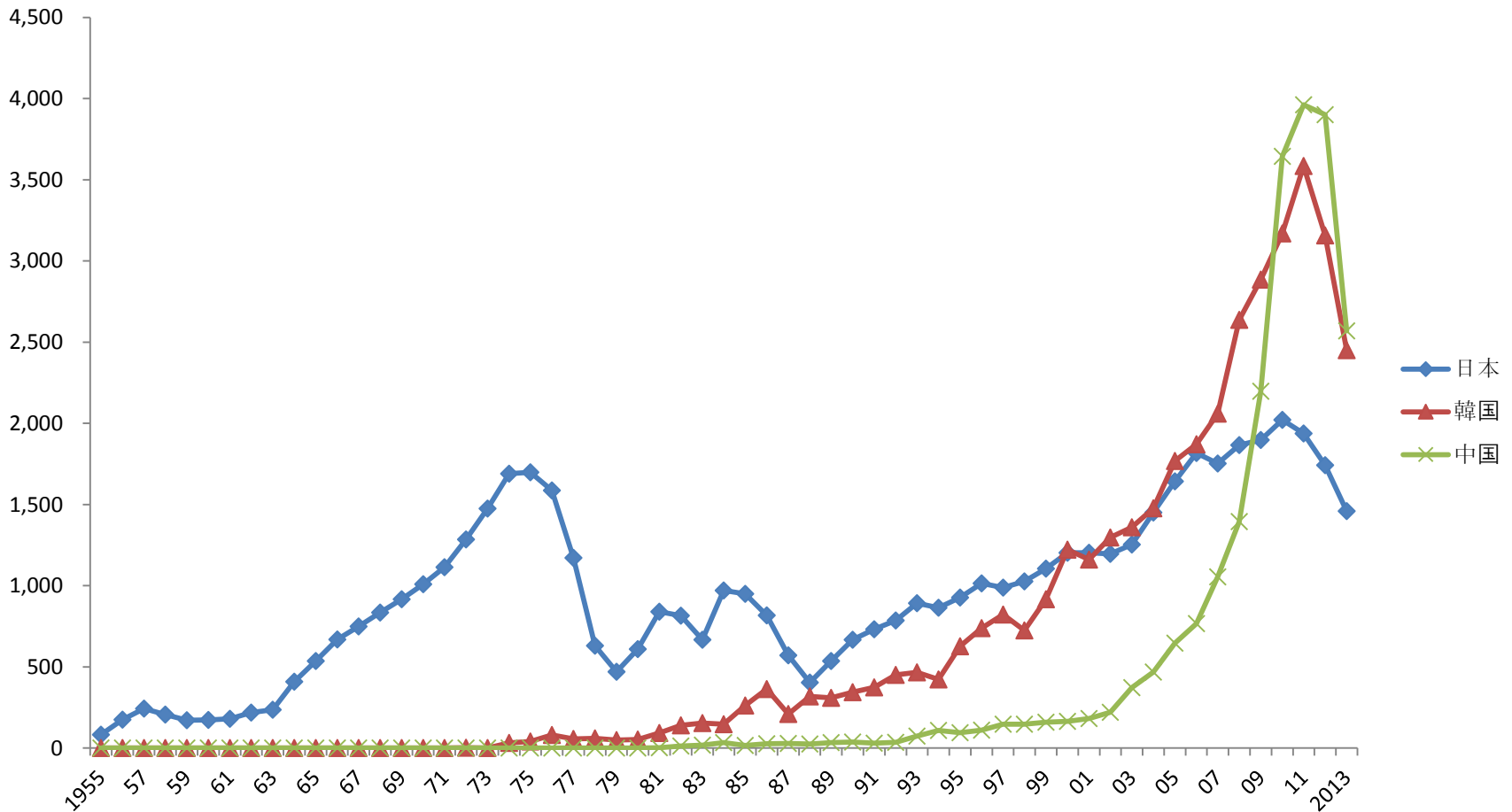
→ 대상기업·산업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일본 중화학공업분야의 구조조정은 지방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구조조정 후의 재생은 가능한가?

일본 중화학공업분야의 구조조정

-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
 - (1) 경제여건 악화: 엔고, 오일쇼크, 세계적인 수요 감소
 - (2) 1960년대 고성장시기의 과도한 설비투자로 인한 공급과잉
-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
후발국(한국)의 추격과 급속한 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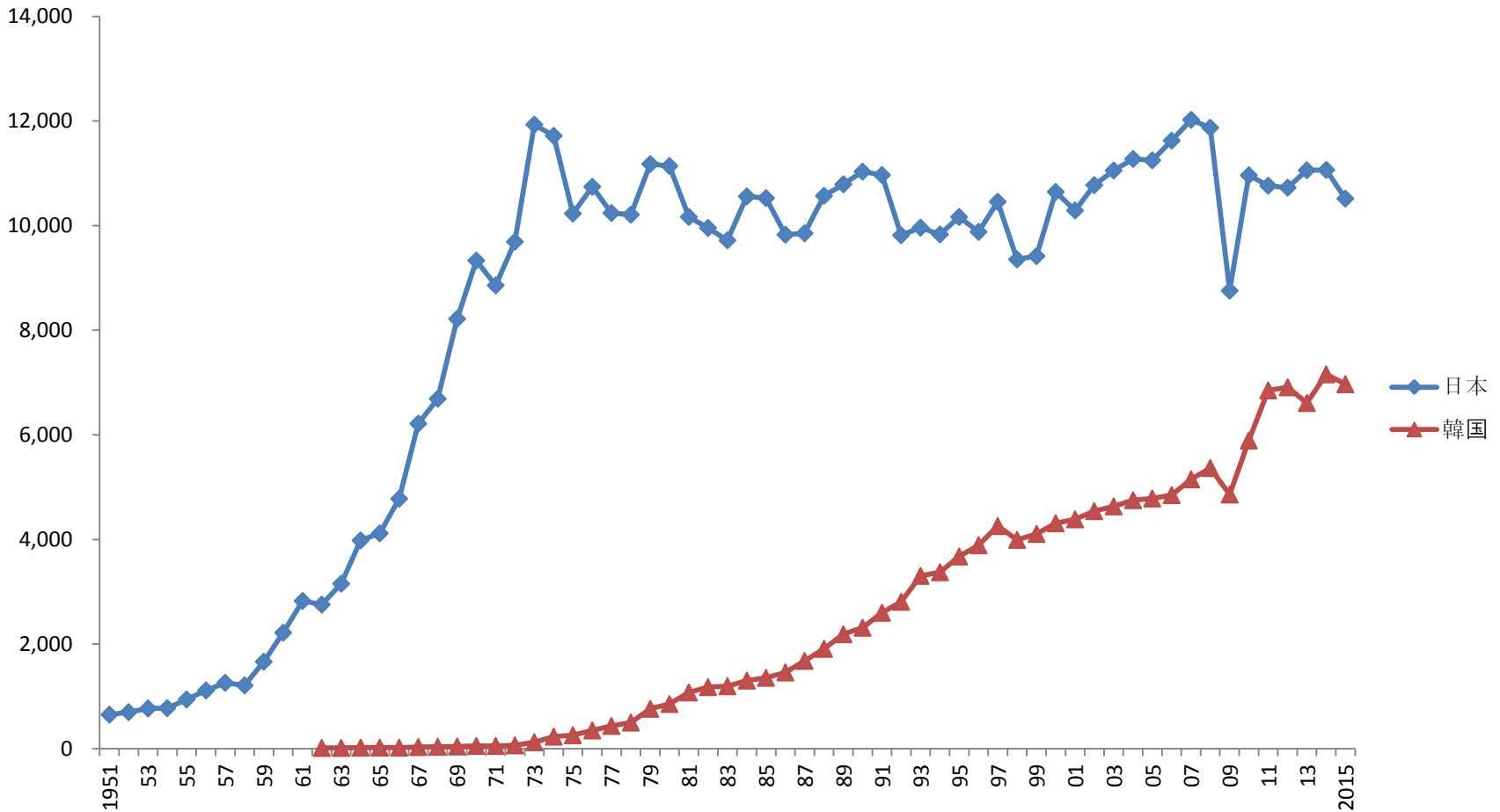
한중일 조선 건조량 추이(단위:만억톤)



(주)100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

(출처)국토교통성『국토교통성 백서』각 년도판(원출처는 HIS).

한일 조강생산량의 추이 (단위:만톤)



(출처)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한국철강협회.

구조조정(1)

조선업의 「구조적인 불황」대책

(제1차 불황대책) 1978년, 5000톤이상의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건조대 또는 도크를 보유한 선박제조업을 「특정불황 산업안정임시조치법」에 근거한 **특정불황산업**으로 지정, 61사에 대해 보유설비의 35%에 해당하는 340만톤의 삭감을 권고 (대기업은 40%, 중견 이하는 15~30% 삭감).

(제2차 불황대책) 1987년, 「특정선박제조업 경영안정임시조치법」이 성립, 5000톤이상의 사업자 44社 21그룹을 26社 8그룹으로 집약화. 공급능력을 603만 톤에서 460만 톤으로 삭감.

구조조정(2)

신일본제철의 「합리화」계획

1977.10 **제1차합리화계획** : 조강(粗鋼)생산 4700만톤 체제를 80년까지 3600만톤으로 압축하기 위해 **야와타(八幡)**와 가마이시의 대형 공장, 히로하타 강판공장 등의 가동 중단을 결정.

1982.4 **제2차합리화계획** : 조강(粗鋼) 2800만톤 규모로 조정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서, 무로란·히로하타·사카이의 고로 각1기를 가동 중단.

1984.1 **제3차합리화계획** : 중기조강생산규모(2700-2800만톤)에 상응하는 규모 실현 = **무로란**과 히로하타의 대형공장, 가마이시의 고로 1기, 사카이의 열연(熱延)공장 조업 중단.

1987.4 **제1차중기경영계획(제4차합리화계획)** : 1990년에 조강생산이 2400만톤이 되어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체제 실현 = **야하타**, 가마이시, 히로하타, 사카이의 고로 각 1기
정지(가마이시, 히로하타, 사카이는 고로 완전정지 → 무로란 1기도 북해제철(北海製鐵(株))에 이관
고로는 기미츠, 나고야, 오이타에 집약).

「기업도시」문제

중화학공업의 경우 넓고 싼 공장부지, 저임금 노동력 때문에 대기업이 지방으로 진출하여 대규모 공장을 건설, 후에 이 핵심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도 집적=「기업도시」

• 기업도시의 중소기업 문제

(1) 시장·기술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능력이 부족

(2) 업종과 보유 기술이 편중

→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기업이 무너지면 조성된 산업집적도 쇠퇴.

기업도시와 대도시의 산업 집적

	지방(기업도시)	대도시(도쿄 오타구, 히가시오사카 등)
수주처	특정 대형공장	광범위한 수주처
재무 성격	성숙한 사업분야	시험제작품
생산방식	저비용 대량생산	고부가가치상품을 소량생산
기술	확립된 기술 설비·기술의 폭이 좁다	새로운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보유 기술 폭이 넓다
생산자	비슷한 유형의 생산자 모기업에 종속	이질적인 유형의 생산자 자립적인 성격
생산조직	모기업을 중심으로 세로로 계열화	유연하고 오픈된 관계
공업집약	가공기능이 일부 기업에 편중	광범위한 가공기능이 존재. 많은 산업분야가 공존

(출처)세키 미츠히로·오카모토 히로키미 편저『도전하는 기업도시- 조선업의 오카야마현 다마노』新評論,2001년, p.15 표2를 일부 수정.



구조조정과 지방경제의 쇠퇴 - 아이오이 시 예

• 1907년 하리마선거(船渠)설립.
1929년 고베제강소에서
하리마조선소 독립, 탄카를
중심으로 성장. 하청공장도 다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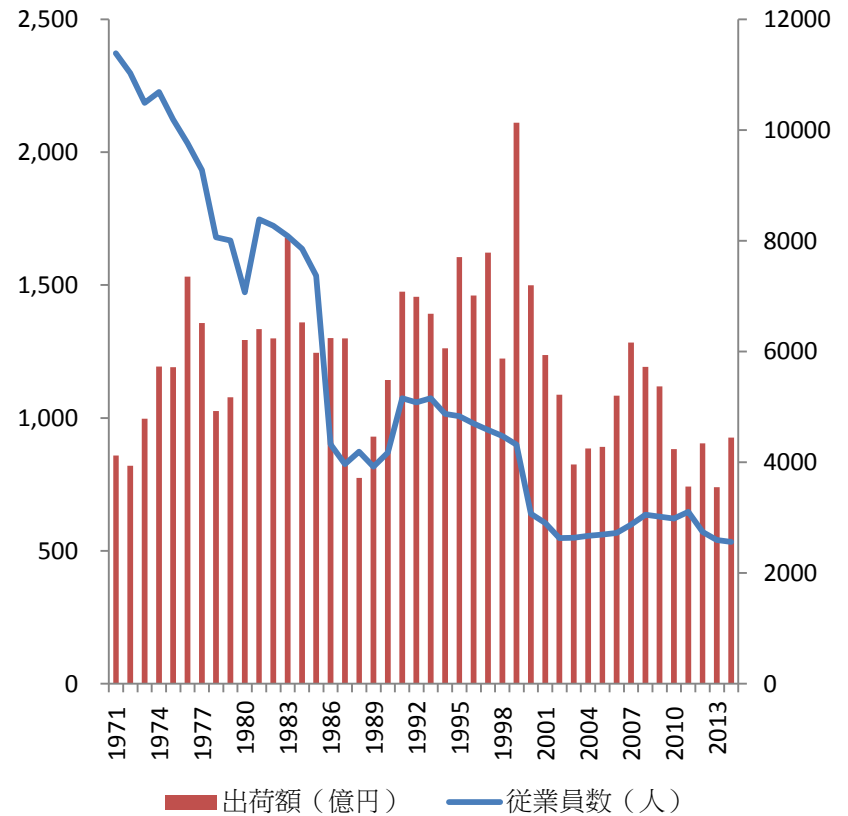
• 1960년 이시카와지마중공업과
합병하여, IHI로 변경. 아이오이
조선소 1972-74년에는 세계
제일의 건조양.

• 그러나 조선불황으로 1986년
아이오이조선소는 전면
가동중단

• 아이오이市는 화학·기계관련
기업을 유치.

그러나 고용창출에는 한계.

아이오이 시의 제조업 추이



(출처) 경제산업성『공업통계표』.

기업도시의 생존 사례(1)

핵심기업의 특색 있는 사업 전개

- 다마노:미츠이 조선이 선박엔진제조사업(대형엔진 일본 국내 시장점유율 50% 이상, 세계 3위)를 다마노에 남겨두고, 금속가공 등의 하청기업도 그대로 유지.(단, 중국으로 이관도 서서히 진행 중).
- 무로란:1970~90년는 장기불황.2000년대 이후,무로란제철소가 자동차용 특수강 봉강(棒鋼)·선재(線材)중심으로 특화→도마코마이의 도요타 훗카이도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체도 출현.

기업도시의 생존 사례(2)

새로운 기업도시의 형성

- **이마바리 시 및 주변지역**: 옛날부터 중견/중소조선소와 선용(船用)공업, 해운회사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
- 2000년대부터 벌크선에 특화시켜 급성장, 특히 이마바리조선은 지역 내외의 조선회사를 연이어 매수, 일본 최고메이커로.
- 행정도 적극적으로 지원 = 2005년에 12개의 시정촌이 합병하여 「이마바리市」가 탄생. 해운 관련회사가 550사 이상으로 집약된 「해운도시」로 공장부지 조성, 인재육성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도시의 생존 사례(3)

부(負)의 유산을 정(正)의 유산으로 전환

- 기타큐슈市: 야와타제철소가 1978-88에 걸쳐 1基만 남겨두고 고로를 정지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
- 공장부지의 재개발을 위해 기타큐슈市, 대학, 신일본제철이 연계 = 환경문제에서 산관학(産官學) 연계를 경험

「기타큐슈市 에코타운」

1. 교육·기초연구: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 = 환경관련학과, 연구센터가 집적.
2. 기술·실증연구: 대학과 신일본제철이 연구소를 설립, 처분장 관리기술과 자원의 재활용 기술의 개발.
3. 사업화: 「종합환경 콤비나트」 = 재활용 공장 등의 집적.

기타큐슈市 에코타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한국 중화학공업의 특징: 정부주도에서 조성된 소수의 공업단지에 대규모공장이 임지=높은 효율성에 의해 지금까지 생존에 성공. 그러나, 일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대규모이기 때문에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중소기업의 취약성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 지방경제의 재생을 위해서는, ①핵심기업의 그 지방에서의 생존대책, 또는 새로운 전개, ②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

Makoto_Abe@ide.go.jp

감사합니다.